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22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 행동 지침十

-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 2. 다시 교회로 (Rebuild)
-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전화: (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손달익 담임목사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2022년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서울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그리고 모든 우리의 이웃들에게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특히 분쟁과 갈등, 가난과 질병 등으로 신음하는 지구촌 곳곳에 주님께서 사랑과 화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의 공포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도 속히 평화의 새 아침이 임하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요 1:14에는 예수님의 성탄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표현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강림하신 일이 성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일컬어 '성육신'이라 하며, 이 성육신의 정신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자 의미입니다. 성육신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가 하나님임을 말합니다. 요 1장에서는 그가 하나님이셨으며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이시며 역사 현장 속에 강림하셔서 모든 역사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염려나 좌절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미래를 향한 힘찬 도전도 담대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을 온전하고 참되게 보여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부와 일체로 계신 당신의 위엄을 소개하는 말씀이지만 일생을 통해 아버지의 참 모습을 세상에 보이기 위해 사셨다는 말씀도 됩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게 해 줍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교회를 주목하고 직시하는 사람들의 눈에 어렵듯하게라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양식이나 사역을 통해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을 통해 그리스도가 비춰지고 드러나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참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함은 이론이 실천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모든 측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실천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 현장에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 보이셔서 현장화하시고 역사화 하시듯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존재양식도 사랑의 실천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높은 차원의 이론에 머물고 있는 공리주의자들이 아니라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표현하고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함이 성육신 신앙의 정신입니다. 실천되지 않는 사랑과 외침은 우리를 위선자가 되게 하고 맛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뿐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교리체계나 교회의 조직에 대하여 시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고백하는 바를 실천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하고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큰 사랑을 실천하신 성육신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참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성탄은 그의 사랑 실천입니다. 이 성육신의 정신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고 실천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모두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2022년 10대 뉴스

## 1.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서울교회!

2022년은 이웃을 섬기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 교회 차원에서, 그리고 각 부서마다 이웃을 생각하고 헌신했다.

특히 7년 만에 열린 바자로 많은 성도들의 기증과 기부로 이어져 풍성한 결과를 가져왔다. 바자 수익금은 포항 수해 교회를 지원하였고 화령 샘물교회와 우리나라농선교단체(디아스포라)에는 바자본부가 수익금을 전액 받지 않고 판매금 모두를 가져가시도록 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렸다.

그리고 성인 남성 노숙인 시설인 복지센터 '은평의 마을'에 생수 2리터짜리 1만 병을 세 차례에 걸쳐 기증하기로 하고 두 차례 기증을 마쳤다.

다음은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실천한 이웃 사랑들이다.

(1) 2021 성탄헌금을 1월 한 달 동안 강남구청에 복지와 관련하여 자문을 얻고 강남 복지

재단에서 선별해 준 시설을 소개받아 기부하였다.

(2) 서울교회와 함께하는 취약계층 어르신 지원 사업 '설맞이 정(情) 나눔' 행사를 하였다

(3) '우크라이나를 위한 헌금'을 총회를 통해 전달하였다.

(4) 유년부(부장 : 이승준 집사)는 상반기에는 울진 화재로 피해 본 호산나교회에 성금을 전달하였고 하반기에는 방글라데시 소망유스텔에 컴퓨터를 기증하였다.

(5) 2022년 고난주간 금식헌금을 강남구에 등록된 기관 3곳에 '서울교회' 이름으로 전달하였다.

(6) '작은 교회 세우기 온라인 시스템 지원 사업'을 공모하여 18개 노회에서 추천 및 선정한 18개 교회에 250만 원씩 지원하였다.

(7) 기록적 폭우로 피해 본 서 방글라데시에서 선교사역 중인 이경엽, 송은옥 선교사의

홍수로 인한 긴급구호 청원을 받아들여 전액을 지원하였다.

(8) 사랑의 바자 수익금으로 태풍 11호 힌남노에 피해 본 포항과 경주지역의 교회를 지원하였으며 성인 남성 노숙인 시설인 복지센터 '은평의 마을'에 2차에 걸쳐 생수를 지원하였다. 또한 바자 수익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대치동 관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대치1동에 기부하였다.

(9) 사명자대회 사랑의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이웃에게 1인 1사랑 실천을 나누기 위해 전임 교역자들이 '꿈밭에 사람들'을 11월 3일(목)에 방문하여 후원하였다.

(10) 청년부는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총 52명의 여아만을 양육하는 보육원 '선덕원'을 방문하여 귀한 시간을 보내고 후원하였다.



## 2. 15대 장로 임직 및 15대 집사 추가 임직

지난 4월 24일(주)에 15대 장로 임직 및 15대 집사 추가 임직 예식을 가졌다.

지난 5년간의 교회 분쟁으로 오랫동안 장로를 세우지 못했던 서울교회에 이제 주의

신실하신 일꾼들이 장로로 임직 받고 집사로 임직 받는 귀한 시간이었다.



## 3. 정관개정을 위한 공동의회

별도 규정 형태로 시행 중이던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을 교회정관에 포함시키고 교단헌법 개정에 따라 일부 부서 명칭과 항존직 호칭을 변경하는 등의 정관개정안을 963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960표, 반대 3표로 집계되었다. 이번 정관개정 공동의회는 또 다시 불필요한 법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민법상 요구되는 전체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로써 서울교회의 법적 토대가 더욱 공고해졌다.

## 4.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서울교회 모든 모임과 교육이 정상화되면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로 교회학교의 정상화와 함께 모든 모임이 정상화된 한 해였다. 서울성경대학이 개강하였고 열린프로그램으로 살림경로대학과 아기학교 등이 대면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7월 2일(토)부터 “서울가족 토요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였다. 매월 첫 토요일 새벽에 함께 모여, 한 달간 주의 은혜로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Coram Deo)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찬양과 기도, 말씀과 축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기도회를 마친 후에는 각 가정의 자녀를 위한 손달익 담임목사의 축복기도 순서가 있었다.



### 5. 흥해작전, 사명자대회를 대면으로 재개하다

2022 흥해작전이 "흥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팬데믹을 넘어 부흥으로" 주제로 6. 6(월) - 6. 25(토)에 열렸다.

또한 2022 사명자대회가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주제로 10. 9(주일) - 11. 27(주일)에

열렸다.

특별새벽기도회는 강사로 서범석 목사(주복교회), 송용원 목사(장신대)가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다.

특히 사명자대회본부(위원장 : 유중기

장로)는 2022 사명자대회의 일환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새가족 초청의 기회를 가지고자 '송정미 찬양콘서트'를 11월 18일(금) 오후 8시에 본당에서 개최하여 은혜와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 6. 교구별 친교 모임을 가지다

지난 10월 10일(월) 8교구를 시작으로 한 달간 진행된 교구별 친교 모임이 은혜 중에 잘 마쳤다.

교회의 혼란한 시기를 기도와 믿음으로 잘 견뎌주시고 교회 회복을 위해 힘쓰신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고 개편된 교구 식구들의 친교

를 위해 진행된 교구별 친교 모임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7. 성경암송대회

지난 11월 12일(토)과 13일(주일), 2022 성경암송대회가 있었다.

11월 12일(토)에는 일반부가, 13일(주일)에는 교회학교별로 진행하였다.

많은 성도들이 부서별 혹은 개인별로 참석하여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 8. 대치동 어린이를 위한 비전 나눔 음악회, 대치동 청소년을 위한 비전 나눔 음악회 개최

평소 교회에 들어올 계기가 없었던 대치동 주변의 청소년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교회에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전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더불어 배움재단이 주최한 '2022 우리마을 공감 음악회'가 10월 16일(주일)에 열렸다. 또한

'대치동 청소년을 위한 비전 나눔 음악회'가 11월 27일(주일) 오전 9시 30분 웨스트민스 터홀에서 열렸다.



### 9 환경을 위해 힘쓰는 한 해

올해는 교회 차원에서 환경을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 사순절 캠페인으로 탄소 줄이기를 전개하여 영·유아부는 영·유아부와 함께하는

'탄소 금식'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중·고등부는 6월 5일 환경 주일을 맞아 환경 보호를 실천했고 교회 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1년

캠페인으로 진행하여 하반기부터 교회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실천하였다.

### 10. 본당 LED, 음향 공사

좀 더 나은 예배 영상을 위해 2층 본당 LED 모니터 설치공사가 진행되었다.

공사는 LED 교체공사뿐만 아니라, 왼쪽 천장부터 벽면까지 부식되고 곰팡이 슨 부분의

제거 공사와 LED 모니터에 연결되는 영상장비 교체도 함께 진행되었다.





# 무익한 종에게 넘치게 베푸신 은혜만 기억하며 물러나려 합니다



임상헌 장로

저는 이제 정해진 교단법에 따라 시무장로직 은퇴라는 시간을 맞았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은퇴란 있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제 신앙 역정에 큰 전환의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심히 부족한 저를 '내 사랑 서울교회'의 시무장로로 부르시고, 맡겨주신 중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때마다 개입하여 주시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를 가능하도록 기도와 배려와 사랑으로 도와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일 어깨를 누르던 육신의 짐은 가벼워지지만 동역자들과 남겨둔 많은 일 때문에 마음의 짐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사명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라는 각오로 최대한 순종했습니다. 교회와 성도 간의 소통이 장로의 가장 보람된 역할이라는 다짐으로 부지런히 뛰어다녔습니다. 나태했다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렸습니다. 저로 인해 한 성도도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사 조심하며 일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볼 때 부족하고 부끄럽고 죄송했던 일들만 기억에 맴돕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고자 노력했지만 심히 부족했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의 작은 신음에도 세심히 관심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임직 당시 다짐한 '말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매주일 의식했지만 불민한 까닭에 자주 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처 입은 여러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죄를 구합니다.

무엇보다도 당회원으로서 세심히 살피지 못해 분쟁을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아직도 깊은 상흔이 남아 있는 분들께 너그러운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 어느 하나도 그저 시키시지 않고 엄청난 보람으로 몇백 배 보상해 주셨습니다.

교회 분쟁이라는 처음 경험해 보는 환란을 만나 견디기 힘든 고통스런 순간도 있었지만 분에 넘치는 사랑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질책 받을 일들이 많았을 텐데도 모두들 아무런 내색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보내 주셔서 작은 열매라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고통받고 수고한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도 개인적으로 수고했다는 따뜻한 격려를 들을 때마다 심히 민망하고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오직 교회가 부르신 여러 사역에 귀히 쓰임 받는 기회와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기도와 물질과 헌신으로 함께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다면 여러 성도님들께 드릴 소원이 한 가지 있

습니다. 교회 개척기에 감상했던 청년부 연극 중의 대사의 구절이 기억납니다.

'오늘 부를 노래가 있다면 오늘 부르십시오, 내일은 부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입니다. 곧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순간이 올지 모릅니다. 무작정 무기한 기다려 주지도 않습니다. 아직도 할 일 많은 서울교회에는 여러분의 섬김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교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드릴 간청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영웅 처칠은 전쟁할 때는 과감하고 승리할 때는 관용하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는 말씀처럼, 쉽게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겠지만 분쟁 중 우리 옆을 떠난 분들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를 아주 힘들게 했던 분들에 대하여도 예수님처럼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명한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사례하겠느냐'는 말씀처럼 무익한 종에게 넘치게 베푸신 은혜만 기억하며 물러나려 합니다. 온전히 타버린 번제물처럼 조그마한 사역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기 위해 철저히 비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고 버리지 마시옵고....'(왕상 8:57)라는 말씀처럼 사람 어느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서울교회와 함께 하시기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과 밖, 그리고 멀리서 가까이서, 한발 물러서 묵묵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더욱 많은 시간을 갖고 그동안 짐중하지 못했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맡기고 가는 남겨진 사역에 오직 힘찬 박수만 보낼 준비를 하렵니다.

마지막으로 염치없지만 부족한 종을 위해 아침의 태양도 아름답지만 석양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지나간 세월보다 남은 생애에 더 축복하여 주시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 1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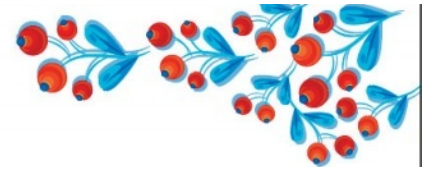
지난 시간들, 많은 분들의 사랑과 배려로 마음껏 달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당회서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바자 본부장, 찬양위원회 위원장, 새가족부 부장, 구제위원회 위원, 멀티미디어부 위원, 장학회 위원

안수집사 은퇴를 앞두고



##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강전 집사

제가 처음 교회를 간 것은 육군 현역 이등병 때였습니다. 후반기 교육을 받고 3년 머무를 자대 배치를 받은 후, 주일이면 내무반에 머무르며 고향에 편지나 쓰면서 소일 하곤 했는데 어느날 종교를 선택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때 제가 교회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선택이 아니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이었음을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그때 기억으로는 이삼십 명이 함께 강원도 화천군에 소재한 교회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현역 재대를 하고 울산현대조선소에 취직을 하고 1년쯤 되었을 때 중동 사우디에 건설 기능공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현대 건설 안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사실은 그때까지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3년을 중동에서 근무하고 귀국하여 아내 양길순 권사를 만나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하면서 동네 어떤 권사님의 권유로 충현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며 차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보니 너무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서울이라는 낯선 곳에서 가정을 일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꿈만 같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새삼 지난 날을 돌아켜보니 한 가정의 가장으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지만 신앙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제야 우리 하나님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데 어느덧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저는 지금 소망부에서 봉사를 하며 내 힘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 섬기려고 합니다. 아직도 저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제 길도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이 칠십이 되는 지금 저는 아직도 믿음이 성장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퇴는 제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쟁으로 너무 아팠던 서울교회가 어서 속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쉬임 없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소망부 교사



안수집사 은퇴를 앞두고

##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임수 집사

할렐루야!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안수집사 직분을 받은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은퇴를 할 시간이 되다니 참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지금까지 교회를 이탈하지 않고 늘 교회 안에서 지내온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안수집사 직분을 처음 받을 때는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점 그런 마음들은 희미해지고 은퇴를 앞둔 지금은 부족했던 것만 생각이 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여러 직분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비전2020본부 차장을 하면서 군복음화를 위하여 했던 각종

사역들입니다. 육군 3사단, 12사단, 22사단과 육사, 공사, 해군 사관학교 간호사, 해병대 그리고 논산훈련소 등에 군세례 지원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젊은 장병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며 군복음화를 통하여 민족복음화의 길이 앞당겨지도록 했던 비전2020본부의 사역들은 참으로 보람된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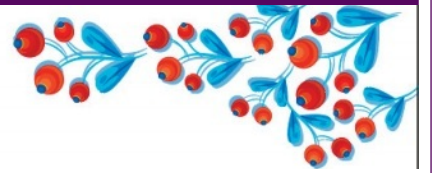
이제 저는 일선에서 물러나지만 은퇴 집사가 되더라도 서울교회의 부흥과 군복음화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역지원 소위원회 위원, Vision 2020 차장, 재정위원회 계수2부장, 장년5부 차장, 어린이 오후 예배 부감, 중등부 교사

권사 은퇴를 앞두고

### 직분은 은퇴 有, 사명엔 은퇴 無



김찬진 권사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기쁠때나 슬픈때나 힘든 시간들!

2002년도에 권사로 임직 받고 2022년도인 오늘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에 은퇴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권사로 섬기는 초임때는 우리 주님만 아시는 고통의 시간에 도피성을 향했었고, 열두 제자를 성격대로 사역하게 하셨던 주님의 발자취를 감히 따르고 싶어서 열심을 특심의 성향 주신대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줄을 잡고 힘껏 달려오다 욕심내는 무리들로 인한 교회의 분쟁에 아픈 마음 부여잡고 총회장으로 노회장으로 법원으로 숨가쁘게 뛰게 하심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많은 섬김 중에 살롬 권사회장이셨던 박경희 권사님과 제1 권사회장. 장호림 권사님과 임·역원들, 많은 회원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맛간장을 만들어 나누면서 교회 회복기금으로 10,000,000원을 바치기 위해 연말 선물을 포기하면서 드리면서 기뻐하고 바치면서 감사했던 우리 권사님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요즈음 항상 드릴 기도 제목 중 새가족들로 예배당이 채워지기 전에, 우선 되어지기를 새벽기도회에는 200명이

넘는 권사들이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나오고, 수요일부 예배는 주일예배 참석하셨던 은퇴하신 분들이, 찬양예배는 스테반 회원들이 함께 예배하고, 당회원 가족들이 모든 공적 예배에 함께 한다면 아름다운 본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 문 열고 주일 외에 문 굳게 닫아두는 아픔이 해소되도록 기도의 사명으로 나아갑시다.

끝으로 내사랑 서울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여러 사람들을 여러 도구로 사명따라 쓰임 받을 때 세분의 부목사님들을 서울교회가 지속되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3분의 목사님들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교회가 존속(存續)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걸 노리고 강남노회에서는 교묘하게 연임 거부를 했었지요.

생명을 다하는 심정으로 지켜온 서울교회의 진정한 주인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에는 은퇴가 없음을 고백하며 충성하도록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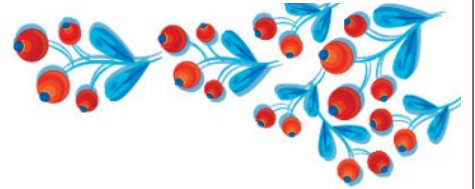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찬양대, 새가족부 교사, 고등부 교사, 초등부 부감, 초등부 교사, 유년부 교사, 어린이 찬양예배 부감 및 교사, 성품학교 교사, 성례부 차장 인도선교사도고팀원, 설교사역도고3팀장, 70인전도대원, 목요기도팀장, 에스더전도회 회장, 제2권사회 회장, 통합권사회 회장, 리브가전도회 회장

권사 은퇴를 앞두고

### 그 때를 기억하며



이영자 권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직을 받던 그때, 2002년을 뒤돌아 봅니다.

처음에는 "권사님"이라고 불리는 자신의 호칭에 놀라 기도하고, 어색하고 부끄러워 숨기고 싶은 심정이기도 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하는 권사"가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고, 앞에는 이종윤 원로목사님을 선두로 하여, 부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의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힘찬 사역에, 우리 권사들도 감격과 은혜의 순간순간들을 함께 하였습니다.

매년 봄, 가을에 열리던 10주간의 목회자 세미나에서, 원근 각지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을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고 나면, 피곤함은 간 곳 없고, 어찌 그리 행복했는지요! 또 연중행사 중 가장 자랑스러웠던 김치세미나를 섬길 때는 세계 각국의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외국 교회 지도자님들이 오셨다가, 감격을 안고 돌아가시는 뒷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또 매년 5월 어버이날 즈음에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모셔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소정의 선물로 섬겼던 일들이 은퇴를 앞둔 나의 마음속에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되돌아보면 그 때가 감사할 때였고, 은혜가 넘쳤던 순

간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기뻐하셨던 일에 보잘것없는 저희를 사용해주셨다고 생각하니 감사가 넘칠 따름입니다. 이제 항존직 은퇴의 자리에 서서 볼 때, 앞으로도 항상 그 때를 기억하며, 보람되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은퇴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있듯이, 후배 권사님들의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 갈채를 보내며, 선배 은퇴 권사님들과 함께 뒤에서 기도하며 물심의 성원을 다하려 합니다.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교회가 요청하는 기도 제목을 안고 무릎을 꿇을 것이며, 예배에 충실하고, 아직 시력이 남아 있을 때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계명을 더욱 충실히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고한 사랑의 은혜로 과거가 있었고, 오늘이 있으며, 영원한 내일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뵈뵈전도회 회장, 2009년 권사회 회장, 가브리엘찬양대 호산나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 가브리엘 부대장, 권사회



##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 I·II·III 예배 시 성탄 감사예배  
찬양예배 시 - 항존직 은퇴식 / 성경통독자 시상 / 장한 어머니 상 시상  
찬양예배 후 - 특별제직회

복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아 오늘 I·II·III부 예배 시 성탄 감사예배를 드리며 성탄 감사헌금을 드린다. 또한 각 교회학교 졸업 감사예배가 교회학교별로 있다. 찬양예배 시간에는 주님 앞에서 평생을 순종하며 기도와 섬김

의 도리를 다하다가 총회헌법과 서울교회 규정에 정한대로 정년이 되어 은퇴하는 장로와 집사, 권사들의 은퇴식과 장한 어머니 시상식, 성경통독 시상식이 열린다. 찬양예배 후에는 예·결산을 다루는 특별제직회가 열린다.

### 장한 어머니 상:

다자녀 - 고영미

개근 - 남재은 이진희 오재영 이선애 오숙영 이진영 이수정 손영희 송명원 공나형 고민정 박미라 차현정 노애리 정신아 조상희 신아령 최재연 안재희 양세정 김윤지 박지혜 임현영 한혜선 차선혜 정은혜

### 성경통독자

1독 : 이선희 정금희 채교천 강은경 채형숙 박정희 조순엽 임미경 이경선 임송자 김은숙 송미정 김애리 서정현 김인아 홍정란 김정희 최형렬 김찬진 이은희 한은미 양옥자 추석우 박정애 나현주 양영자 박미현 구성현 김순진 김소형 박미영 신재곤 전숙진 최옥경 전성희 김희순 주화연 박혜정 오만옥 박춘자 홍석현 안분선 박정선 김남순 박현영 진 돈 김경희 서미영 김선희 위성남 서상근 김수호 노문한 장정화 최광성 이영주 김숙자 이관모 박수옥 황선영 손지희 김승록 전미경 김재령 양숙란 김혜연 심화숙 백승갑 박길자 김영정 강애자 이봉선 나기태 장애순 김미자 박희서 임명숙 한상준 김찬용 황재연

2독 : 임춘자 유명석 남태영 박동희 조정옥 김재근 박광훈 이경희 이용자 조상희 이안순 유외숙 정희순 황선희 김복희2 박은영2 홍혜련 이강진 김경숙 김진숙

3독이상 : 이옥수 (9독) 류장렬 (4독) 이순례 (4독) 김석봉 (22독) 김영희 최죽희 홍혜란 이영자 전용순

필사 : 류장열(한글 2회 영어 2회) 최종희 윤성남 윤현주(4회) 정희자 이정연 허경화

## 송구영신예배

12월 31일(토) : 10시 30분 송년음악회  
11시 30분 송구영신예배

1월 1일(주) : I·II·III 예배 시 신년감사예배·성찬식  
찬양예배 후 예·결산 승인 공동의회

2023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송구영신예배가 2022년 12월 31일(토) 오후 10시 30분 송년음악회로 시작하여 11시부터 모든 성도들이 지난 과오를 회개하는 기도와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소동 되었다가 11시 30분에 송구영신예배가 손달의 담임목사의 인도로 시작된다.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11시 소동이 되기 전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기 바란다.

2023년 첫 주일인 1월 1일(주일)은 신년감사예배로 주일 I·II·III부 예배 시 성찬식을 가지며 신년감사헌금을 드린다.

찬양예배 후에 2022년 결산 및 2023년 예·결산 승인을 위해 공동의회로 모인다.

## 2022 송년 음악회



1. 오르간 연주  
전지희(가브리엘)  
G.F.Handel의  
Dank sei dir Her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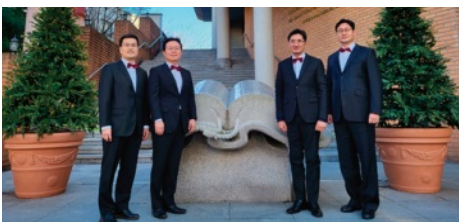
2. 독창 박호연  
(시온찬양대 바리톤)  
주님을 의지해



3. 독창 정우영  
(할렐루야찬양대 베이스)  
주의 은혜라



5. 독창 장하영  
(임마누엘찬양대 소프라노)  
거룩한 성  
(The holy city)  
Stephen Adams



4. 중창  
김영희 김은석 김규원 최음 (베레레함찬양대)  
은혜



6. 색소폰 삼중주  
임범창 정인주 예완식 (아멘관현악단)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 섬김위원 추가자 명단

### - 예배위원회

주일1부 안내 : 윤효민

주일1부 헌금 : 박순복 최금숙

수요1부 안내 : 박혜정3

### - 찬양위원회

가브리엘찬양대 : 김진이(피아노), 김유진

할렐루야찬양대 : 박수련 성춘모 전광영

은빛찬양대 : 황정욱 오충례

갈렘찬양대 : 장상국 김은석 송성태

새벽 기도 반주 : 신아령

### - 교육위원회 : 사랑부 : 박준희

### - 전도위원회 : 예완식

### - 재정위원회 : 김정민

### - 경로대학 : 김광래

### - 선교위원회 : 동아시아 기도팀원 이인숙

## 교사양성반 수료

김혜연 옥종호 김문범 임종현 김양지 김대훈  
전미경 손지희 이승준 문영주 김신영 이은주

## 크리스마스 빵 나눔

사라전도회(회장:이영희 권사)는 올 한 해 나눔의 집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오늘 성도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빵을 나눈다.  
지난 1년간 흘린 수고의 땀으로 성탄절에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주신 사라전도회에 감사드립니다.







### 서울교회 비주얼 아이덴티티(Visual Identity, 시각적 정체성) 시스템 수립을 위한 시안 설명회를 갖다



지난 5월 당회는 오랜 기간 교회 분쟁을 겪고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의 의미와 그 이미지 가치를 새롭게 하고 나아가 한국 교회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사용 중인 서울교회 심볼 마크를 비롯하여 교회 내 여러 홍보물 등에 차별화된 비주얼 아이덴티티 시스템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다행히도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서울교회 성도 중에 있어 디자인팀으로 확대 개편 (팀장: 홍창훈 집사, CI담당: 김금재 집사, 이

미영 권사, 유은경 집사)하고, 이 팀을 중심으로 작업에 착수하였다(2022.5.8. 순례자 기사 참고).

이후 7개월간의 노력을 거쳐 지난 12월 18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당회원, 21일 수요일 1부 예배 후에 은퇴장로님들께 새로운 교회심볼 디자인 시안들을 선보였고, 그 중에서 3개의 카테고리를 추려, 일정기간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동 정

- 5교구 박찬성 집사 : 2022년 월간 한국수필 '충전과 방전'으로 우수상 선정
- 득남 : 6교구 정성우 안수집사 · 박경민1 성도 가정 (정인건 성도 · 남영주 권사 장남 가정)
- 식사 제공 : 6교구 주영도 안수집사 · 오가연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드리며)
- 크리스마스 빵 제공 : 사라전도회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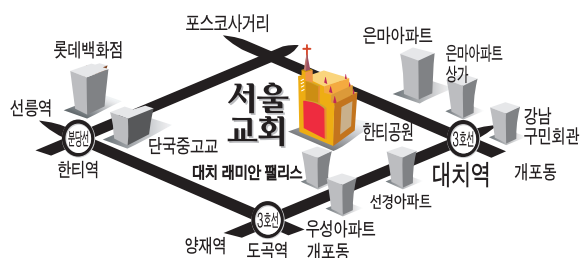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성탄의 기쁜 소식을 이웃에 전하며,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경건한 성도 되게 하소서.
2. 2022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위에, 2023년 새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담을 부대를 잘 준비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3. 이 땅에 복음화된 통일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웨스트민스터 홀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민스터 홀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웨스트민스터 홀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